



☎135-99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 (개포동)
전화: 02)3411-9191 / Fax: 02)3411-9111
홈페이지: www.nasca.or.kr

대한예수교
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

추석 가정예배 모범

예배로의 부름 인 도 자

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(베드로전서 5:7)

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

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,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,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, '본디오 빌라도'에게 고난을 받으사,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,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,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,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. 성령을 믿사오며, 거룩한 공회와,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,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, 몸이 다시 사는 것과,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. 아멘.

찬 송 406장 (통 464) 다 같 이

1.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
 2.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
 3.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
 4. 능치 못 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
- (후 렘)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

성경봉독 빌립보서 4:6-7 인 도 자

- (4:6)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,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
- (4:7)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

말 씀 염려를 대처하는 믿음 인 도 자

염려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. 신앙인이란도 문제가 찾아오고 염려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염려의 마음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. 염려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거나 혹은 심령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'염려를 대처하는 믿음'에 상고하며 염려를 오히려 유익으로 바꾸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.

첫째, 염려가 찾아올 때 '기도'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.

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. 우리의 삶에는 항상 생각지도 못 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. 신앙인에게도 찾아오는 문제는 일시적인 염려를 주기도 하지만 그 때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할 반응은 '기도'입니다. 염려를 묵상하며 '염려를 어떻게 해결할까' 나의 힘을 쓰기보다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며 나아가야 합니다.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직접 맡아서 처리하려고 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염려가 증폭됩니다. 우리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한하는 행위 일 뿐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찾아올 때 일차적으로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

둘째, 염려가 찾아올 때 '감사'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.

염려로 가득 찬 삶은 결코 염려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. 여러 가지 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으면 해결책은 없어 보이고, 감사는 사라지게 됩니다. 주님을 믿는 자들은 '염려하는 일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한 날에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할 것(마 7:34)' 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. 때론 염려거리를 허용하실 때도 있지만, 그 염려를 뛰어 넘어 주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하길 원하십니다. '감사'는 신앙과는 분리할 수 없는 필수요소입니다.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. 염려가 우리의 감사를 뒤 흔들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, 감사로써 염려를 몰아내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

셋째, 염려가 찾아올 때 '평강'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.

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고 약속 하셨습니다.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.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. 먼 미래에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. 우리가 염려 앞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결과요, 선물입니다. 그 평강은 비록 우리가 염려 앞에 있는 순간일지라도 취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. 앞에 놓인 염려거리를 크게 생각함으로 평강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.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이셨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(요 14:27). 산 너머 또 다른 산을 넘는 것 같은 인생살이지만, 우리의 앞길에 평강을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, 오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

우리는 지금까지 염려가 찾아올 때 신앙인이 대처하는 믿음에 대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.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는 먼저 '기도'를 선택하고, 염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'감사'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또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'평강'이 있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. 염려는 몰아내고, 염려를 유익으로 바꾸는 믿음의 대처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준비되길 소망합니다.

찬 송 556장 다 같 이

1.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
 2.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렵없네
 3.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
- (후 렘)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

주기도문

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, 나라이 임하옵시며,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,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,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,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